

<https://youtu.be/Id56jfpScuE> < 장마철 슬기로운 타이어 관리법 영상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한 타이어 점검 팁

- 장마철 빗길 '수막현상'이 교통안전에 큰 위협
-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제동거리 차이 최대 1.8 배
-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수막현상 발생에 영향
- 정기적으로 타이어 및 차량 상태 점검 필요

기상청은 올여름은 작년보다 덥고, 장마와 두세 차례 큰 태풍이 비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이번 여름도 고온, 다습, 집중 호우를 예상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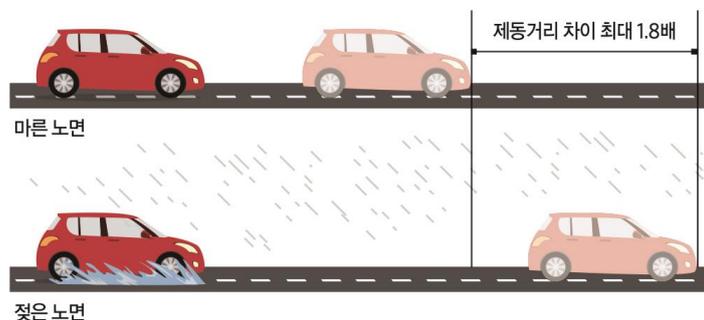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 년 6 월 발표한 빗길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 년 빗길 교통사고 발생이 2017 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 년 대비 25.9% 증가했다.

마른 노면 vs. 젖은 노면 제동거리 차이 최대 1.8 배

시속 50km 속도에서 마른 노면 9.9m, 젖은 노면 18.1m 제동거리 기록

여름철 빗길, 겨울철 눈길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미끄러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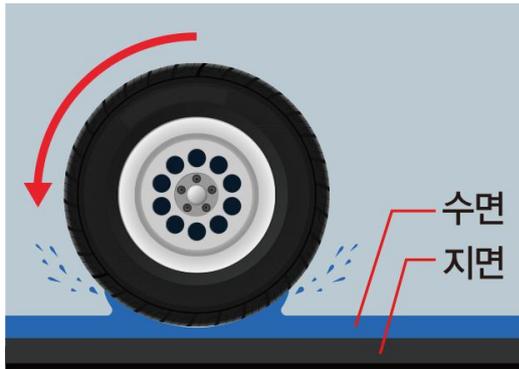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승용차가 시속 50km 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는 9.9m 였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18.1m 였다. 제동거리가 무려 1.8 배가 길어진 것이다. 화물차의 경우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보다 1.6 배(15.4m → 24.3m), 버스는 1.7 배(17.3m → 28.9m) 길어졌다. 제동거리의 차이는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다.

'물 위를 달리는 자동차?' - 수막(水膜)현상은 여름의 '블랙 아이스'



눈과 결빙의 계절 겨울에 '블랙 아이스(black ice)'가 있다면, 장마, 태풍, 기습성 호우의 계절 여름에는 '수막현상(水膜, hydroplaning)'이 있다.

수막현상은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물의 막' 즉 수막이 생기면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접지력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수막현상은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 이럴 경우 노면과의 접지력을 상실한 자동차는 수막 위를 미끄러지게 되고 제어가 안 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제안하는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법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빗길 안전운전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평상시 규정 속도보다 20%, 폭우가 내릴 때는 50% 감속 운전하자.

폭우 시 50% 감속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50% 이상 길게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액셀러레이터를 천천히 밟아야 조향 제어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장마철을 완벽히 대비했다고 할 수 없다. 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의 한국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현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장마철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타이어 점검법을 정리했다.

정기적으로 전문점을 방문하여 타이어와 차량 상태 점검해주는 습관이 중요

비용과 노력이 가장 안 드는 안전운전 비결은 정기적인 차량 점검이다. 스스로 혹은 가까운 정비점을 방문해 최소 한 달에 1 회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점검을 받는 습관이 필요하다.

빗길에서 접지력 유지를 위해서 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필수

자동차 부품 중 유일하게 노면과 맞닿는 부분인 타이어 트레드를 보면 가로 세로로 다양한 '무늬'를 볼 수 있다. 자동차가 빗길을 주행할 때 신속하게 빗물을 배출해 타이어가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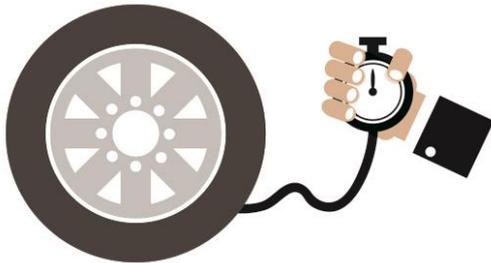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될수록 타이어의 배수 기능은 떨어지고, 빗길을 주행할 때 수막현상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는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 기능뿐만 아니라, 접지력, 제동력, 코너링 등 타이어 성능 전반을 약화시킨다.

장마철을 앞두고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도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특별한 장비 없이 눈으로 쉽게 타이어 교환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타이어 옆면에 볼록 튀어나온 삼각형의 꼭짓점을 따라가다 보면 트레드 홈 안에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타이어 '마모한계선'이라고 한다.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한계선과 높이가 거의 같거나 같아진 상태라면 '즉시' 교체할 때다. 또한, 100 원짜리 동전을 거꾸로 타이어 트레드에 넣어서 장군의 사모(모자)가 보이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다. 수치상으로는 타이어 트레드의 깊이가 1.6 mm 이하면 교체를 서두르라고 한다.

타이어 성능 유지를 위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필요



타이어의 모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자동차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다. 타이어에 주입된 적절한 공기압은 자동차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면서, 타이어가 최적의 형태를 유지해 타이어가 가진 기능과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하면 타이어의 배수 기능도 떨어지고, 타이어 편마모, 손상, 소음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 수준에서 10% 이상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공기가 주입된 상태를 '공기압 불량' 상태로 보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 트레드 양쪽이 노면과 주로 마찰하면서 편마모가 발생하고 접지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타이어 공기압이 과하면 타이어 트레드 중앙이 노면과 집중 접촉하면서 이 부분의 마모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타이어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은 타이어 트레드를 골고루 노면과 접촉하게 해줌으로써 타이어의 접지력, 제동력, 조종성능, 배수성능, 내구성을 극대화한다. 내 차의 적정 공기압이 궁금하다면 운전석 문 안쪽에 표시된 표준 공기압 수치로 확인 할 수 있다.

비 올 때 필요한 필수 기능 점검 - 와이퍼, 전조등, 공조 장치



장마철을 앞두고 타이 점검을 끝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와이퍼는 장마 시즌에 깨끗한 시야 확보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두는 게 좋다. 물이나 워셔액을 뿌려 와이퍼 작동을 확인했을 때 와이퍼의 세척력이 약하거나 떨림이 심하다면 와이퍼 고무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전조등, 브레이크등, 지시등 상태를 점검해주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비 올 때 주간에 전조등을 키고 운전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률이 17% 이상 줄어든다.

앞 유리에 김이 서리면 서리제거 모드에서 에어컨을 함께 작동시킨다. 에어컨을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 점점 외부온도와 가깝게 맞추면 김 서림을 줄일 수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상품기획팀 차상대 팀장은 "장마철을 포함한 여름 빗길은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는 시즌"이라며 "장마, 갑작스러운 폭우, 태풍 등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운전 수칙을 숙지하고 꼭 타이어 점검을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